

R-2. 하악 2급 이개부 병변 치료시 비흡수성 차폐막과 혈소판 농축 혈장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

김창호, 임성빈, 정진형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 배경

2급 이개부 병변의 치료시 GTR 및 bone graft 등의 regeneration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bone graft시 연조직 및 경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Platelet Rich Plasma를 이용하여 하악 2급 이개부 병변을 치료할 때 그의 효과를 ePTFE membrane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연구대상

단국대학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20명

2급 이개부 병변(Glickman, 1950)을 가진 하악 대구치 24개

임상적 부착상실이 5mm 이상

치아 동요도 1이하

불완전한 보철물로 수복되지 않은 치아

- ePTFE membrane 군 12개 (BBP[®] + ePTFE membrane)

- PRP 군 12개 (BBP[®] + PRP)

술전과 술후 6개월(re-entry)에 각각 측정

Soft tissue measurement

Pocket depth

Recession

Clinical attachment level

Hard tissue measurement

Vertical defect depth(CEJ-Base of defect)

Osseous crest resorption(CEJ-alveolar crest)

Horizontal furcation depth(HFD)

연구결과

1. 두 군 모두에서 치주낭 탐침 깊이, 부착상실 양, 수직적 골 결손의 양, 수평적 골 결손의 양은 술 전에 비해 술후 6개월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($p < 0.05$).

2. 두 군 모두에서 치은퇴축 양은 술 전에 비해 술 후 6개월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. ($p < 0.05$)
3. 두 군 모두에서 치조골정 흡수가 일어났지만 술전과 술후 6개월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 ($p > 0.05$)
4. 두 군간의 비교시 치주낭 탐침 깊이, 치은퇴축 양, 부착상실 양, 수직적 골 결손의 양, 수평적 골 결손의 양, 치조골정 흡수량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($p < 0.05$)

결론

이상의 결과로 보아 2급 이개부 병변 치료시 혈소관 농축 혈장, 비흡수성 차폐막으로의 치료는 연조직 및 경조직 임상지수의 향상을 가져 왔으며 혈소관 농축 혈장과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GTR술식을 비교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.